

#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구성 방식 연구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강진숙\*

(중앙대 언론문화연구소)

---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한국언론에 나타난 교육위기담론의 의미구성방식과 주체구성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진보·보수 언론이 갖는 대립적 입장과 이데올로기적 특성들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셸 페쉬의 담론이론에서 제시된 언어체계의 선택과 조합방식들 - 선구성과 절함 메커니즘 -,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주체구성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사례분석에 들어가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고, 두 신문의 진보와 보수라는 상징적 적대성을 근거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교실붕괴”나 “학교붕괴” 등의 교육위기 담론을 현장진술, 원인과 책임규명 그리고 사후대책의 범주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담론, 의미구성, 주체구성, 미셸 페쉬, 선구성, 절함, 교실붕괴, 교육위기

---

## 1. 문제 제기

교육위기담론은 교육현실을 ‘위기적 상황’으로 진단하고 그 위기적 상황과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입장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위기담론은 주로 ‘붕괴’라는 단어 표현을 통해 자극적인 위기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실붕괴’, ‘교육붕괴’, ‘수업붕괴’, ‘학급붕괴’, ‘생활지도붕괴’ 나아가 ‘교무실붕괴’라는 수식어들이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교실붕괴와

---

\* schaffen3@hotmail.com

학교붕괴 두 용어를 맥락에서 따라 혼용하여 ‘교육위기’ 담론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위기의 공론화를 촉발시킨 배경은 매스미디어에서 발견된다. ‘교실붕괴’는 1999년 8월 이전까지 ‘폭죽이 터져 교실붕괴’라는 기사 제목처럼 주로 건축학적 구조물의 파괴를 의미했다면, 그 이후에는 공공연한 교육위기 담론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 이유는 8월 23일(카인즈 검색 날짜는 8월 24일)에 조선일보가 <무너지는 교실>이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한국의 공교육 현실을 재현<sup>2)</sup>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교실붕괴’라는 용어를 공론화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이미 ‘교실붕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sup>3)</sup>는 주장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표출된 것은 위의 시점 이후이다.

뒤이어 한 달 이후 시사저널도 “학생도 교사도 학교 가기 싫다”(1999. 9. 23.)라는 제목으로 교실붕괴를 커버스토리로 다루었고, 한겨레는 9월 27일에

- 
- 1) 학교붕괴, 교실붕괴, 수업붕괴 등의 용어는 교육위기 담론에서 협의와 광의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혼용해 사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김민(2000)은 각 용어들을 구분해 사용하는데, 수업 붕괴는 교수-학습과정과 연관된 협의 개념으로 보고, 교실붕괴는 교실의 공동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권위와 인격에 대한 상호부정 및 불이해를 중심으로 한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나아가 학교붕괴는 ‘학교교육의 기능적 효용성의 한계와 이러한 한계로부터 빚어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한다. 한편, 이혁규(2003)는 문맥에 따라 위의 용어들을 혼용해 사용하며 교실붕괴 현상에 대한 질적 접근을 행하고 있다.
  - 2) 재현은 표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불어로는 ‘représentation’, 독일어로는 ‘Vorstellung’ 이고, 그 어원은 라틴어 ‘repraesentare’에서 발견된다. 이 개념은 ‘다시(re)-드러남 (présentation)’, 즉 “사물을 하나의 상으로 자신 앞에 재현하는 것을 뜻한다. …마치 피고에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거나 문초하듯이 사물을 앞에 세운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 Vetter, 1987, p. 27. 참조
  - 3) ‘교실붕괴’ 담론을 현장교사들로부터 조명해 들어가는 대표적인 연구로서 이혁규(2003)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처음으로 “교실붕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뒤이어 “청소년교육 대안은 없나”(1999. 10. 30.)는 제목의 특별대담 결과를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그 사이에 “열린교육 1세대 - 고1 교실은 난장판”(1999. 10. 6.)이라는 현장 취재 기사에서 학교붕괴의 원인을 수행평가 등 선부른 열린 교육 정책의 도입이라 주장했다. 각각의 논조와 입장을 차치한다면, TV와 신문, 인터넷상에서 급증한 다양한 접근의 교육위기 관련 기사와 담론은 교육현실에 대한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의 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위기적 담론 형성 과정은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 효과를<sup>4)</sup> 재생산하기도 했지만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한국언론에 나타난 교육위기담론의 의미구성방식과 주체구성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진보-보수 언론이 갖는 대립적 입장과 이데올로기적 특성들을 드러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셸 페쇠의 담론이론에서 제시된 언어체계의 선택과 조합방식들 - 선구성과 절합 기제 -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주체구성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사례분석에 들어가고자 한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고, 두 신문의 진보와 보수라는 상징적 적대성을 근거로 선정했

4)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 효과는 영국과 미국 중심의 경제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하이에크(Hayek, F. A.)를 그 사상적 기조로 하는 경제사상으로서 영미에서 각각 대처리즘과 레이저노믹스 정책을 통해 발전되었다. 하이에크를 기반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를 주장하는 케인즈식의 복지주의를 비판하고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시장’ 원리를 강조한다. 또한 그러한 시장원리가 ‘확장된 질서’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도덕, 즉 성실과 정직 등을 중요한 계율로 지켜준 기독교 종교와 전통을 강조한다 (Hayek, 1988/1996). 그런 의미에서 하이에크의 사상은 ‘신자유주의적’이면서도 ‘신보수주의적’ 기조를 모두 포함한다. 그 밖에도 신자유주의는 홉하우스 등에 의해 제시된 자유주의의 원자적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사상을 지칭하기도 한다(이돈희, 1992; 서덕희, 2003).

다. 이와 함께 “교실붕괴”나 “학교붕괴” 등의 교육위기 담론을 현장진술, 원인과 책임규명 그리고 사후대책의 범주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 2. 교육위기담론의 기존 연구와 담론이론

### 1) 교육위기담론의 기존 연구 경향

교육위기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교육학의 영역 속에서 교실붕괴에 대한 문화이론 및 민속학적 접근을 행하고 있는 연구유형(김민, 2000; 조용환, 2000; 김원중, 2000; 김성철·고창규, 2000; 박윤배·김경식, 2002; 이혁규, 2003)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들은 기존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학교붕괴의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행하고 있다. 이 속에서 학교붕괴의 원인을 세대간의 문화격차 심화와 의사소통의 단절, 탈 근대화 이후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체제, 권위주의적 학업체제 및 매스미디어의 선정적 보도 경향 등으로 진단하며 공교육의 강화 담론과 대안교육 담론 간의 대립 지형을 부각시킴으로써 대안교육체제의 현실화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한편, 학교 현장교사들과의 직접 면담과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과 대화 상황에 대한 참여관찰 방식을 통해 교실붕괴의 현장을 생생하게 진술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경향들이 발견된다.

두 번째는 매스미디어와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경향이다. 우선 TV 방송을 통해 ‘학교붕괴’나 ‘교실붕괴’ 등의 교육위기 담론에 강력한 힘을 가한 것은 1999년 10월 21일에 KBS에서 방송된 <추적 60분>과 같은 해 11월 12일에 MBC에서 방송된 <정운영의 100분 토론> 등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학교붕괴에 관한 영상들은 인쇄매체를 통해 재현되었을 뿐

아니라 학계의 다양한 연구(충북교육학회,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0)와 토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최근에 실시된 “TV뉴스의 교육관련 보도 분석”(이기현, 2004)은 지상파 TV 교육보도의 현안별 주제를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한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보도 건수와 비율을 측정하고 있다. 여기서 분석 기준은 보도형식, 출처 그리고 교육격차에 관한 보도행태로서 결론적으로 각 방송사들의 보도가 입시보도 및 고교교육에만 치중한 점, 대부분의 출처가 정부(3사 합계: 52.1%)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교육격차에 대해 심층적 분석 없이 부정적 사실만 부각된 점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신문담론을 분석한 사례로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서덕희, 2003)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미셸 푸코의 거시적 문제의식을 미시적 담론분석과 결합한 페어클로(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접근을 원용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조선일보의 ‘교실붕괴’ 담론이 교육담론의 ‘시장화’를 유도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도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터넷에 나타난 교실붕괴 담론의 유형”(황갑진, 2001)은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교실붕괴’와 ‘학교붕괴’를 키워드로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작성자 직업과 교실붕괴를 보는 관점을 기준으로 담론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교실붕괴의 주요 원인은 정체된 교육환경 및 방식, 교권실추 및 체벌금지, 성적 우수자 중심의 수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교실붕괴’ 및 ‘학교붕괴’와 연관된 학교현장과 매스미디어 상의 교육보도 및 교육위기담론들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 속에서는 교육위기담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관한 담론의 의미구성방식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교육위기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되고 주체를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교실붕괴’ 및 ‘교육붕괴’에 대한 상징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위치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인과관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담론이론과 문제 틀을 이용해 기존 연구에서 누락되어 왔던 접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위기담론이 어떻게 신문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들을 구성해내고, 나아가 이러한 의미화 방식들이 어떠한 이데올로기 효과를 발휘하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 2) 담론이론의 이해

### (1) 담론의 물질성과 적대성

담론이론의 기본 문제는 ‘누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포착함으로써 의미의 대립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강진숙, 2005, 51쪽).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단순히 언어표현이나 단어 사용의 문법적 서술 방식을 넘어선다. 그 이유는 ‘자유’나 ‘평화’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해도 말하는 주체들이 각기 처한 입장(position)에 따라 서로 다르거나 대립적인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론의 의미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조건들이 담론의 물질성이다. 여기서는 담론이론에서 제기되어 왔던 담론의 물질성에 대한 서로 상이한 이론적 관점을 구분하고, 나아가 적대성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담론의 물질성은 담론과 실재대상<sup>5)</sup>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고, 이는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된다. 우선, 담론과 실재대상 간의 관계 중 담론 자체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주로 ‘언어모델’<sup>6)</sup>로 통칭되는

5) 여기서 ‘실재대상’은 유물론에 입각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고, 실재대상의 존재는 유물론의 제 1테제로서 모든 유물론적 입장은 그것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 대상은 사유와 구별되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다. 강내희, 『유물론적 문화론의 정초를 위하여』, 『문화과학 1』(1992), p. 79.

힌디스와 허스트(Hindess & Hirst)의 ‘인식론 비판’과 라클라우와 무페(Laclau & Mouffe)의 ‘담화적 실천’론에서 발견된다. 이 두 입장은 공통적으로 담론의 규정력이 담론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담론의 물질성, 즉 담론과 실재대상 간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힌디스와 허스트의 경우, “담론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담론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지시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론적 담론에서 명시된 것은 그 담론형식(혹은 다른 비판적, 보조적 담론)을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은 담론 외적으로는 명시할 수 없다”(Hindess, B. & P. Hirst, 1977, p. 19)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이란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 개념의 실재대상인 전자본주의의 현실적 역사단계를 연관지어 사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강진숙, 2005, p. 44), 그리고 인식론 비판에 있어서는 인식론이 담론과 실재대상의 영역을 구분 짓고 양자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려 드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식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Macdonell, D., 1986, p. 76)고 비판된다.<sup>7)</sup> 한편, 라클라우와 무페(1990)는 사회적 실천의 언어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양자 간의 차이는 담론적 총체성 내의 분화로 파악해야

- 6) “언어모델”이라는 지칭은 광의의 측면에서 20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대두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구조주의적, 탈구조주의적 방법론과 연관된다. 협의적 측면의 언어모델은 탈구조주의적 방법론에 기초한 사회이론 등 탈맑스주의적 조류 중에서 특히 담론을 최종심급으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들을 지칭한다. 이 입장은 맑스주의를 ‘단순 환원론’으로 비판하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길을 언어이론 자체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언어모델’로 일컫는다(강내희, 1992).
- 7) 사실 전통적으로 부르주아 철학을 지배해 온 인식론은 사물의 존재방식이나 원인과 무관하게 오직 개인의 인식능력에 의해 지식의 참과 거짓이 판명된다고 단정함으로써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조작되고 어떤 이익에 봉사하는지 하는 문제는 간과했다. 하지만, 힌디스와 허스트가 인식론이 행한 개념과 실재대상, 나아가 담론과 실재대상 간의 관계 설정에만 천착하고,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인식론의 내재적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한다고 주장한다. 즉 ‘생산관계’나 ‘변혁’ 같은 개념도 사회적 행위 속에서의 의미가 아닌 담론 내에서의 의미, 곧 다른 개념들과 함께 언어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을 때만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현실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모순과 실천은 담론적 실천에 의해서만 해결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두 번째는 담론을 형성하는 물질적 조건으로서의 실제대상에 초점을 맞춘 입장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담론이 형성되는 사회적, 역사적 조건을 집중 탐구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담론이론을 들 수 있다. 담론의 물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론 자체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언어모델과 달리 푸코는 담론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권력과 지식체계 간의 유착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17세기 중엽에 형성되어 19세기 까지 이어진 ‘광기에 관한 담론행위’ 또는 ‘광기담론(discourse of madness)’에 대한 푸코(1961)의 접근은 단순히 광기라는 병리현상의 분석에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광기와 광인에 대한 지식 및 담론체계가 어떻게 광인을 술주정뱅이나 결인들처럼 ‘합리성이 결여된’자로 규정하고 격리하는가, 나아가 여기서 광기에 대한 정교한 지식체계가 어떻게 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는가 하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 강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푸코의 담론이론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담론연구의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언어학 내의 담론분석이 보여주는 세밀한 분석방법을 결여하여 언어가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 분석할 수 없다(서덕희, 2003)는 점이고, 또한 푸코의 지식-권력 담론연구는 담론이 각각의 입장들을 ‘대립적’으로 표출하는 투쟁의 장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Side, 1983)에서 드러난다. 에드워드 사이드(1983)에 따르면, 푸코는 “권력이 어떻게 획득되고 사용되며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수동적이고 비논리적 견해를 갖고 있다”(p. 221)고 지적하며,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저항 세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다. 예컨



대, 19세기의 프랑스에서 감옥, 학교, 군대, 공장들이 훈련용 공간이었고 감시 규칙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강을 잡는 질서에 대한 저항과 반작용의 힘 또한 존재했다는 점은 간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담론의 적대성과 의미의 대립에 관한 문제는 중요해진다.

세 번째 담론이론의 유형은 담론의 물질성 뿐 아니라 담론의 적대성을 중요시한 입장이다. 여기에는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론을 담론이론으로 발전 계승한 미셸 페쇠(Michel Pêcheux)(1975)를 위시하여 푸코의 담론이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페어클로(Fairclough, 1992; 1995), 그리고 담론분석의 체계화를 꾀하고 있는 반 다익(Dijk, 1983)의 담론이론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중에서도 페쇠는 푸코가 담론의 물질적 조건은 인식하면서도 담론의 적대성, 즉 의미대립의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분산된 자율적 규칙’으로서의 담론만 남겨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국 『지식의 고고학』에 나타난 푸코는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 자신이 성취한 진보에서 물러나 ‘제도와 기능의 사회학’으로 후퇴하고 말았다”(Pêcheux, 1982, p. 186)는 것이다. 즉 푸코가 언어의 억압성, 즉 언어가 부르주아 사회 안에서 억압의 도구로 쓰이는 데에만 착안하는 한계를 지녔다면, 페쇠는 언어의 의미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에 달려 있다고 봄으로써 담론을 변혁의 실천전략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강진숙, 2005).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급투쟁의 문제가 모순된 현실에 대한 절대적인 대안이나 해결방안이 아니라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캘리니코스(Callinicos, 1989)의 견해처럼 ‘그 자체가 바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담론의 적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푸코와 페쇠의 입장을 갈라놓는 중심축이 된다. 나아가 담론의 ‘적대성’, 즉 의미의 대립적 성격은 담론영역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근거하여 특정 언어체계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원리 등을 통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담론이론의 유형은 각각의 이론적 강점과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담론과 실재대상의 관계, 담론의 물질성 그리고 담론의 적대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각각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담론이론 중에서도 폐쇠의 접근에 중심을 두고 담론분석에 필요한 분석 범주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폐쇠의 담론이론은 담론과 계급적 위치들을 연관시킴으로써 그 안에 내재하는 적대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분석장치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데올로기 구성체와 담론구성체 개념을 서로 연관시킴으로써 담론 내부의 의미생산 방식 뿐 아니라 담론외부의 규정력을 밝힘으로써 담론이론을 통한 지배권력의 재생산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담론의 개입 방식: 선구성과 절합

그러면, 담론은 상이한 입장에 따라 어떻게 서로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가? 이러한 의미구성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개입 방식을 외재적 측면과 내재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담론 외적 개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폐쇠의 견해처럼 담론의 의미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투쟁을 벌이는 ‘입장’과 그와 연관된 ‘제도(이데올로기적 제도)’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담론 내적 개입의 필요성은 담론의 의미대립과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담론이나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담론 과정’을 이루는 단어, 표현, 명제들의 배치와 조합 방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담론의 외적, 내적 개입방식을 폐쇠가 제기한 선구성(혹은 선구성된 것, the preconstructed)과 절합(articulation) 기제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sup>8)</sup>

8) 폐쇠는 ‘선구성’과 ‘절합’을 상호담론(interdiscourse)의 기능으로 보고, 상호담론을 담론 구성체의 복합적 전체로 정의한다. 여기서 상호담론은 담론이 발생할 수 있는 절대적 조건으로 위치한다. 즉 주체의 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호담론이 필수적인 전제가

우선, “선구성” 기제는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이 담론적인 것들에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나타나는 기제이다. 여기서 ‘이데올로기적인 것들’은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들의 복합체(ISAs)’(Pêcheux, 1982, pp. 99~100)를 포함하는 이데올로기 구성체를 가리킨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구체적인 물질적 존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알튀세의 이데올로기론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담론적인 것들’은 담론구성체를 가리킨다. 폐쇄에 따르면, 담론구성체는 “의미의 자궁”(Pêcheux, 1982, p. 113)으로서 “특정 이데올로기 구성체에 준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계급투쟁의 국면에 의해 결정된 계급적 입장에 따라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말해져야만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p. 111, 184)을 말한다. 즉 담론구성체가 이데올로기 구성체 내에 존재하지만, 이데올로기 구성체에 의해 형성된 입장을 ‘일정한 방식’으로 언어를 통해 ‘의미화’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선구성 기제는 이데올로기 구성체에 의해 형성된 입장이 담론구성체에 개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주체들에게 ‘자명한 진리’를 전달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쇄가 시도하는 것은 부르주아 언어철학과 다른 유물론적 접근이다.

부르주아 언어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로 작동하는 것이 ‘자명성(self-evidence)’에 대한 신화이다. 자명성은 말하는 주체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함으로써, 언어의 표현적 성격을 이용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것이다(Pêcheux, 1982, p. 110). 폐쇄의 시도처럼 담론이론의 유물론적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관념적 언어철학에서 발견되는 ‘주체와 의미의 자명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고 부르주아 담론과정으로부터 역사유물론의 전망에 기초한 새로운 담론과정을 구축하는 데 있다.(Pêcheux, 1982, p. 11, p. 171.) 이러한 맥락에서 폐쇄는 기존의 언어학이 결정적으로 고려하지

---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쇄의 ‘상호담론’, ‘선구성’, ‘절합’ 개념은 후속 연구(Wood, 1977)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이 이루어졌다.

못한 지점, 즉 의미론의 정체를 낳았던 지점을 포착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의미론적 접근이 이데올로기의 존재에 대한 고려 없이 ‘발화주체의 자명성’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1982, pp. 83~93 참조)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러면, 이 선구성 기제를 통한 의미구성 방식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끼어들음의 효과’ 혹은 ‘도입의 효과’라고 설명되는 이 선구성 기제는 담론 속에 호명된 개인에게 ‘현실성(reality)’을 제공한다(Pêcheux, 1982, p. 113). 여기서 현실성은 실재(the real)가 아니다. ‘실재’가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을 구성하는 특정한 역사적 순간의 생산관계와 계급관계에 기반 한다면, ‘현실성’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상상적으로 구성되는 현실에 대한 이미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Pêcheux, 1982, p. 183). 따라서 선구성 기제를 통한 ‘현실성’의 효과는 실제관계가 아닌 가상의 관계를 둘러싼 상상적 이미지들을 자명한 진리로 둔갑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인 것이다. 예컨대, “대량 살상무기 보유국 이라크가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주장 밖에서 이미 구성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라크는 대량 살상무기 보유국이고, 우리 세계는 자유롭다는 것이 이미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문장 이전에 ‘선구성된 것’은 항상 이미 주체의 담론 속에 존재하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자명한 진리, 즉 ‘상식’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의해 ‘안보’와 ‘전쟁’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유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구성>의 예는 프로이트가 즐겨 쓰는 농담(전해자, 1990)에서도 나타난다. “여기가 바로 웰링턴 장군이 그런 말을 했던 장소입니까?” “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만, 웰링턴 장군은 그런 말씀 하신 예가 없는데요!” 농담을 통해 선구성된 ‘자명한 진리’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이와 같이 <선구성> 기제가 외부적이고 선형적인 담론 외적 개입에 의해 나타나는 반면, <절합>은 담론 내재적 관계에서 발견되는 기제로서, 분절된

단어나 절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다(Pêcheux, 1982, p. 113). 예컨대, 위의 문장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에서 ‘때문에’라는 접속어의 역할에 주목해 보자. ‘때문에’는 전체적으로 구성된 문장을 뒷받침하는 필연적인 해석을 낳는다. 즉 이 접속어는 두 문장을 인과관계로 연결함으로써, 주절의 사고를 지지하고 떠받쳐주는 효과(sustaining effect)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맥락 안에서 ‘알려진 것으로의 회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이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듯이”는 특정한 주체의 입장을 모든 ‘인간’적 상황을 함축하는 보편성으로 치환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절합>의 기능은 ‘느낌(sence)’과 ‘확신’의 효과를 불어넣는 데 있다. 즉 호명된 주체-언론매체 상의 ‘국민’, ‘시민’, ‘시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환기함으로써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전하거나 ‘...그래서 ...이 잘못되었다’, 혹은 ‘그래서 ...이 타당하다’라는 확신을 제공한다는 것이다(강진숙, 2005, p. 70). 따라서 주체의 담론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문장의 ‘절합’은 개별 문장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생산해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절합 기제가 담론 주체의 의식수준이나 담론 내적 개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필연적 해석으로 유도하는 절합 방식은 선구성된 것 중의 하나를 선택/배제하고 조합하는 담론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두 가지 담론의 의미구성 방식-선구성, 절합-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현실성에 입각해 전제함으로써 느낌과 확신의 효과를 불러오는 한편, 지배적 담론구성체와의 상상적 동일시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것은 곧 억압기제가 작용하지 않더라도 권력의 의도에 ‘자유롭게’ 동의하는 주체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선구성>과 <절합> 기제를 통해 자발적 동의와 보편적 합의를 꾀하는 것이 바로

지배적 담론구성체의 목표라면, 이러한 지배 담론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방식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것은 폐쇄 담론연구의 과제이다.

### (3) 호명을 통한 주체 구성

앞에서 본 <선구성>과 <절합> 기제의 작동방식과 효과가 중요한 것은 단지 이 기제들이 자명한 진리와 같은 ‘의미의 자명성’을 발생시키는 원리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주목할 것은 ‘의미의 자명성’ 이면에 주체를 생산하는 ‘어떠한’ 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즉 <선구성>과 <절합> 기제가 담론주체를 구성하는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의미성이 부각되는 것이 폐쇄의 ‘역동일시(dis-identification)’ 개념이다. 이 개념에는 변혁의 전망과 주체구성의 전략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 역동일시의 주체구성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쇄가 담론의 주체형태를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어떠한 형태의 주체구성 방식이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역동일시적인 주체구성을 통해 어떠한 효과를 꾀할 수 있는가를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폐쇄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문 알튀세의 이데올로기와 주체범주<sup>9)</sup>를 구체화시킨다. 그것은 1) 이데올로기적 층위는 상이한 구체적인 이데올로기들의 복합체이고, 2) 이데올로기는 그 속성상 주체범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범주는 이데올로기와 항상 함께 다니며, 모든 이데올로기의 구성범주이다(Pêcheux, 1982, p. 102). 이처럼 알튀세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의 범주에 대한 재정리에서 나아가 폐쇄는 이데올로기 자리에 ‘담론’을 위치시킨다. 즉 1) 담론구성체의 복합적 전체는 다양하고 상이한 담론구성체들의

9) 알튀세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1970)에서 제시한 호명태제는 다음 두 가지 태제를 거쳐 제출된다. 즉 1)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데올로기 내의 실천 외에 다른 실천은 없다 2) 주체에 의한, 주체들을 위한 이데올로기 외에 다른 이데올로기란 없다(Althusser, 1991, p. 174)는 두 가지이다.

결합이다 2) 모든 담론은 그 속성상 담론의 주체형태(범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환원된다. 여기서 제 1명제가 강조하는 바는, 담론구성체의 다양성과 차이성이다. 즉 담론구성체 내에는 어느 한 계급 및 계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고 모순된 다양한 계급 및 계층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강진숙, 2005, p. 74). 이러한 맥락에서 폐쇄가 담론의 주체형태를 보는 출발점은 인간의 주체성이나 활동이 아니라 “생산관계의 재생산과 변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조건”(Pêcheux, 1982, p. 129)에 있다.

그러면, 이 재생산과 변혁에 부응하는 주체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여기서 재생산과 변혁의 문제는 담론적 실천과 연관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담론구성체들은 계급적 이해를 일반적으로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모순의 구조로서 한편으로는 지배구조의 재생산을 수행하는 담론적 실천(동일시 효과를 통해)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혁적 전망을 실천하는 “진형재편작업(a work of reconfiguration)”(Pêcheux, 1982, p. 155)의 현상이 된다. 여기서 “모든 담론은 그 속성상 담론의 주체형태(범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제 2명제가 성립된다. 그 이유는 담론적 실천 속에서 담론의 주체형태가 형성되고, 주체범주는 단일한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과 변혁의 전망 속에서 다양하게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쇄는 알튀세가 설명한 동일시와 반동일시의 주체형태를 넘어서서 역동일시라는 저항주체의 형태를 제기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폐쇄는 제1차대전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 이 세 주체형태들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동일시(identification)는 담론의 말하는 주체가 대주체(이데올로기, 신 등)를 자생적으로 반영하는 ‘좋은 주체(good subject)’의 형태이다(Pêcheux, 1982, pp. 156~157 참조). 이 동일시의 양상은 모든 프랑스인 주체를 ‘우리’라는 범주로 호명함으로써 “주체 곧 프랑스(subject=France)” (Pêcheux, 1982, p.

165)라는 동일시의 등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동일시의 효과는 참전의 정당성과 긴박성을 보편화시켜 ‘프랑스 병사라면’ 모두 참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현실화시킨다. 여기서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그 폐해는 어떠한지 하는 문제는 배제된다. 이러한 동일시 효과의 이면에 감추어진 것은 ‘안보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이다.

한편, 동일시와 역동일시의 중간지대가 반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의 공간이다(Pêcheux, 1982, pp. 157 참조). 즉 반동일시의 공간은 상상적 동일시로부터 역동일시에 이르는 도정의 중간에 위치하는 회색지대로서 ‘나쁜 주체들(bad-subject)’들의 담론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예컨대, 1차대전 당시의 양상은 도시와 농촌의 피지배층 이데올로기의 자생적 작용에서 나타난다. 즉 “죽는 사람만 매일 죽는다”라는 모토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평화주의 운동가들이 반전의 기치를 올렸지만, 결국 지배권력이 ‘조국’과 ‘민족’을 앞세워 내전 지배 이데올로기 효과, 즉 조국방위를 위한 참전의 자명성에 순응하고 만다. 이처럼 이 지대에서 두드러진 주체형태는 대부분 동일시로 회귀하는 길로 빠져드는 게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잠재적으로는 역동일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표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페쇠(1982)가 강조하듯이 동일시와 반동일시가 언뜻 보기에는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역 안에서 대칭적 구도를 이루며 서로를 지탱해 주는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처럼 동일시, 반동일시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역 안에 위치한다면, 역동일시(dis-identification)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효과를 견제하고 새로운 유형의 실천을 꾀하는 전략이다. 즉 담론구성체를 비롯해 세계체제의 작동방식을 변화시키는 전략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강내희, 『언어와 변혁』, 1992, p. 41). 여기서 중요한 정치적 실천의 초점은 ‘비주체적 입장 취하기’로서 현실과 유리된 주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적 실천(Pêcheux, 1982, p. 158~159)을



전개하는 데 있다. 즉 상상적 동일시를 통해 주체가 망각하고 있는 ‘외부’ 현실에 대한 인식, 나아가 그 인식에 기초하여 실천적 전치를 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쇄는 레닌의 역동일시 전략이 기존의 “세계경제와 정치체제”라는 담론구조를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체제 vs 제국주의 경제와 정치체제”로 전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1982, p. 167)고 평가한다.

그런데, 여기서 ‘비주체적 입장’ 즉 ‘주체 없는 과정’이 주체형태의 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경우,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라는 신화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역동일시 효과는 “과학적 개념들의 전유와 새로운 유형의 정치조직들에 대한 동일시라는 주관적 과정에 의해 역설적으로 실현된다”(Pêcheux, 1982, p. 159)는 것이 폐쇄의 견해이다. 따라서 역동일시는 지배 내 구조의 재생산과 존속에 복무하는 동일시 및 반동일시의 이데올로기 효과와는 다르다. 즉 역동일시의 실천은 이데올로기적 실천이면서도, 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은 재생산이 아닌 변혁의 측면에서, 즉 이데올로기적 주체를 통해 담론구성체를 변형시키거나 치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호명을 통한 주체의 형태는 단지 지배적 담론에 동일시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동일시, 나아가 역동일시적 주체형태로 다양한 프리즘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체구성의 방식은 <선구성>과 <절합> 기제의 의미구성 방식과 함께 담론의 배후에 있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와 규정력을 간파하는 데 기여한다.

### 3. 분석방법

#### 1) 분석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교육위기담론에 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들이다. 이 두 신문을 선택한 이유는 두 신문이 한국 언론의 진보와 보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일간지로서 서로 상이한 이데올로기적 맥락에 따라 담론의 적대성, 곧 의미의 대립 지형을 도출해내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석기간은 1999년 8월 24일~2005년 9월 30일까지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1999년 8월 24일(Kinds 검색결과 기준)에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교실붕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위기담론을 만들어 냈고, 그 이후 한겨레를 비롯한 거의 모든 일간지들이 학교붕괴 현장에 대한 진술기사, 원인 진단 그리고 극복방안 및 대안에 관한 보도기사와 사설 및 칼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2005년 9월 30일 최근까지의 교육위기에 관한 두 신문의 담론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서로 상이한 입장들과 이데올로기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담론분석의 차원과 기사수집의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론 분석의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폐쇄 담론이론의 주요개념들에 근거하여 1) 담론 외적 개입 - <선구성> 기제, 2) 담론 내적 개입 - <절합> 기제, 3) <호명>을 통한 주체구성의 범주를 적용하고자 한다. 담론 외적 개입의 분석은 두 신문담론 외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입장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나아가 서로 대립적 의미들을 생산해 내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동일시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담론 내적 개입은 각 신문담론 안에서 어떠한 방식(절합)으로 선구성된 입장들이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지를 드러내주며, 마지막으로 <호명>을 통한 주체구성의 분석은 각 신문담론이 교육위기 담론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체형태들을 불러내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폐쇄가 제기한 재생산과 변혁의 전망에 대한 문제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담론분석 방법과 함께 교육위기에 대한 신문담론의 흐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진술, 원인규명 그리고 사후대책에 관한 분석범주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범주를 부가하는 이유는 ‘교실붕괴’나 ‘학교붕괴’ 등의 위기담론이 어떻게 교육현실을 재구성하고 일정한 입장에 따라 서로 상이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기사들을 수집하는 방법은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 검색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검색기준은 검색조건, 검색범위, 검색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본 연구는 검색조건에 “교실붕괴”, “학교붕괴”, “교육”을 중심 키워드로 사용하고, 검색범위는 제목+본문 검색과 제목 검색 방식을 혼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색기간은 1999년 1월 1일~2005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했다.

#### 4.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구성 방식

##### 1) 분석대상의 이해를 위한 전제

우선 양적 분석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교육위기담론에 관한 기사계재 건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앞에서 이미 제시했듯이 조선일보가 1999년 8월 23일(Kinds

검색 날짜는 24일에 처음으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1)는 제목 아래 교실 붕괴에 관한 담론에 착수했다면, 한겨레신문은 뒤이어 9월 27일에 “교실붕괴”라는 용어를 사용해 한국의 교육위기 양상을 표현하는 기사를 실었다. 1999년 1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제목+본문>을 검색범위로 하여 두 신문의 “교실붕괴” 관련 기사게재 건수를 조사한 후 자체 계산한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총 116건(연재기사 46건은 따로 검색 후 합산, 중복기사 제외), 한겨레신문은 이보다 적은 총 108건(연재기사 41건, 중복기사 제외)의 기사를 실었다. 또한 같은 분석기간 및 검색범위를 적용하여 “학교붕괴”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는 총 49건,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총 46건의 기사를 실었다. 그 밖에도 같은 분석기간 동안 <제목>을 검색범위로 하여 “교실붕괴” 중심적인 기사를 검색한 결과에서도 조선일보의 경우는 총 6건, 한겨레신문은 총 4건으로 여전히 조선일보의 양적인 우위가 두드러졌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은 우선 “교실붕괴”와 “학교붕괴” 관련 기사의 게재건수와 “교실붕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한겨레신문보다는 조선일보가 교육위기 관련 의제 및 담론형성을 주도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붕괴”보다는 “교실붕괴” 용어의 사용빈도 수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주로 “교실붕괴”라는 키워드로 교육위기 담론의 기사게재 건수와 제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기획연재 기사의 경우 조선일보가 46건, 한겨레신문은 41건이 실렸다. “교실붕괴” 관련 기획연재 기사의 제목들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2> 참조). 참고로 기획연재기사 중 어느 하나가 검색결과에서 누락된 경우가 많아서 해당 기사제목으로 재검색을 실시해 보완했다.

<표 1> “교실붕괴” 관련 기획연재 기사의 제목 비교 (조선일보)

게재 일자	제 목
1999. 8/23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1): 고교생 80%가 ‘버려진 자식’
27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2): 개학해도 학생절반 ‘방학 중’
28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3): ‘교실붕괴’ 뒤편엔 ‘가족붕괴’
31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4. 끝): 선생님 열정 사회가 되살리자 (이상 4건)
2000. 3/4	선생님에게 제자리를(1): 교육 바로 세우기 첫걸음은 교권회복
7	선생님에게 제자리를(2): 사제, 불신부터 깨자
14	선생님에게 제자리를(3): 교사. 학부모는 적?
21	선생님에게 제자리를(4): 교무회의는 ‘지시회의’
28	선생님에게 제자리를(5): ‘승진 점수’ 족쇄 풀어야
4/4	선생님에게 제자리를(6): ‘권세대 교사에 N세대 아이들’
18	선생님에게 제자리를(7): 교권침해 심각
25	선생님에게 제자리를(8): 사대부속 中高 없는 곳 많아 실습 애로
5/2	선생님에게 제자리를(9): 교사 옥죄는 교육행정
9	선생님에게 제자리를(10): 좌담 (이상 10건)
2001. 3/5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제1부/1): 가정 직장 포기 ‘교육 엑소더스’
6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2): 유학 모자. 자취 아빠
7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3): 외국인이 본 한국교실
12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4): 1등도 꼴찌도 ‘유학 열병’
13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5): 학교선 사고 학원서 공부
14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6): ‘붕어빵 학교’ 염증 하루 166명꼴...
15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7): 교사도 “떠나고 싶다”
16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8): ‘영어 병어리’ 만드는 학교
17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9): 수능 안보고 유학준비
19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10): 유학 가서야 ‘실무’ 터득
20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11): 이메일 홈페이지에 쏟아진 경험담
4/6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제2부/1): 1등도 꼴찌도 ‘붕어빵 교육’
7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2-1): 방황하는 영재들..왕따 취급만
7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2-2): 선진국의 수준별 교육 사례
9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3-1): 선택권 없는 학교 배정
9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3-2): 학교 선택권 외국 사례

13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4-1): 교육평준화 틀만 고집
13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4-2): 어느 자립형 사립고 '청사진'
14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5-1): 자질 떨어지는 교사 퇴출장차...
14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5-2): 선진국의 엄격한 교원 질 관리
20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6): '師大 시계'는 아직 70년대
26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7): 열린교육 6년...교실은 '놀자판'
5/17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8): 학생 침묵, 교사 독백... '토론없는..
24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9): 반복 또 반복... '춤추는 교육행정'
31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10. 끝): 풍나물교실...토론수업은 먼나라...
6/7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제3부/1): 미 필립스 아카데미(앤도버)
21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2): 영 세인트 폴 스쿨. 킹 에드워드...
7/12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3): 미 세인트 마스 고교
19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4): 미 스탠튼 고등학교
8/2	교육, 이대론 미래 없다(5. 끝): 핀란드 외국어학교 (이상 39건)
2002. 3/2	초등생 이상과의 열풍(상): 5학년이 벌써 논술준비 '대입' 내몰리는 아이들
3/4	초등생 이상과의 열풍(하): "중학과정 학원서 미리 배우자" 선행학습 붐

<표 2> "교실붕괴" 관련 연재 기사의 제목 비교(한겨레신문)

게재 일자	기사 제목
1999. 8/23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1): 일산 스케이트보드 놀이 공간
9/13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2): '코스프레'공간
20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3): '폴라텍'
10/4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4): 음악연습실 '스킹크'
11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5): 사이버 공간
25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6): 이대앞 패션가게 '인도나라'
11/11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7): 도봉청소년독서실
12/9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8): 청소년 문화작업장 '하사'
23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9): 아르바이트
30	10대 그곳에 가고 싶다(10): 시리즈를 마치며
2001.11/10	수능제도 안정을 위하여(1): 날뛰는 점수/문제은행 체계 구축을
12	수능제도 안정을 위하여(2): 출제문제의 질/종합적 사고 키워줬나

13	수능제도 안정을 위하여(3. 끝): 입시반영 얼마나/수능비중 축소가...
2002.12/12	사교육 공화국(상) : 학교에선 놀고 학원에서 공부
19	사교육 공화국(중) : 날로 팽창하는 사교육현장
27	사교육 공화국(하) : 위기의 공교육 현장
2003. 9/1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 충남 대건중 인성교육
8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2): 인천 남부초교 강승숙 교사
22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3): 서울 도봉초교 강현정 교사
29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4): 안양 성문고 신문활용교육
10/6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5): 남양주 금곡초등 국어수업
13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6): 학생 평가받는 양은영 교사
20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7): 서울 흥은초등 김덕용 교사
27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8): 충남 송남초등 거산분교
11/3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9): 경기 백석고 이성수 교사
10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0): 서울 관악중 백화현 교사
17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1): 군포 도장초등 이영근 교사
24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2): 목포 영흥고 임광찬 교사
12/1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3): 아산 온양고 방진희 교사
8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4): 광주 우산중 임광호 교사
15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5): 화성 봉담초 김재운 교사
29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6): 서울 인현중 김남선 교사
2004. 1/5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7): 경기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 (상)
12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8): 경기 광주시 남한산초등학교 (하)
19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19): 충북 청주농고 정다혜 교사
2/2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20): 경기지역 수학교사들의 모임 ‘수학미래’
9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21): 덴마크 ‘자유교육을 이끄는 학교들’
16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22): 덴마크 ‘학생평가 제도’
23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23): 싱가포르 타운스빌 초등학교
3/1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24): 프랑스 프래네 교육
8	희망의 교육현장을 찾아서(25): 일본 기노쿠니학교의 ‘프로젝트 교육’

한편, 같은 분석기간 동안 <제목+ 본문>을 검색범주로 하여 두 신문의 “교실붕괴” 관련 사실/칼럼·논단/해설 기사만을 조사한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총 26건, 한겨레신문은 총 22건의 게재 건수를 나타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표 3> “교실붕괴” 관련 사실/칼럼·논단/해설 기사 제목 비교 (조선일보, 26건)

게재 일자	기사유형	기사 제목
1999. 8/30	시론	실업고의 ‘교실붕괴’;우리 교육의 사각지대
9/1	사설	‘교실붕괴’ 막으려면
6	미니칼럼	‘실업고 붕괴’를 막자
2000. 4/29	사설	학교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5/2	사설	저소득층 피의 국고지원?
6/3	사설	‘청소년’ 찢어갓기
7/7	류근일 칼럼	칭와대가 한숨쉬는 까닭
7/29	미니칼럼	늘 시간 부족한 아이들
9/28	논단	중, 고 ‘두발자유화’ 이르다
11/7	미니칼럼	실업고 왜 외면하나
12/5	논단	흔들리는 교육현실
12/11	미니칼럼	‘교실붕괴’의 시작?
2001. 1/9	사설	‘학생 3000명 태국 골프연수’
10/11	시론	교육파탄, 보고만 있을건가
10/14	시론	‘교무실 붕괴’ 우려
11/1	시론	교육부가 먼저 변해야
11/28	시론	평준화 교실은 ‘감옥’
2002. 2/1	사설	‘교육개혁’을 개혁한다?
4/1	아침논단	평준화의 끝은 불평등이다
5/15	사설	누가 스승의 명예를 허물었는가?
7/8	시론	고교별 격차 인정해야
9/5	사설	‘껌테기만 남은 고교 평준화’라면
2003. 1/29	시론	교육계는 불안하다
2004. 1/13	사설	교육제도 전면 개편 지금해도 늦었다
5/6	독자칼럼	교육발전, 전문성 갖춘 교사양성에 달려있다
5/18	독자칼럼	교사 권위 부정하면 교실 붕괴 가속화 된다



<표 4> “교실붕괴” 관련 사실/칼럼·논단/해설 기사 제목 비교 (한겨레신문, 총 22건)

계재 일자	기사유형	기사 제목
1999. 11/6	현장칼럼	‘은밀한 해방구’ 벗어나기
11/19	야! 한국사회	누가 학교를 붕괴시키고 있는가
25	사설	학교를 다시 살리려면
12/17	사설	실업계 고교 살려야 한다
2000. 1/13		‘교사 철학이 바뀌면 학교가 달라집니다’
2/9	독자칼럼	무너지는 ‘교사의 마음’
5/10	독자칼럼	과외혼란, 교사 신뢰로 극복을
5/10		‘학원이 대학진학에 유리’/ 실천연대 설문조사
15		스승의 날에 쓰는 참회록
16	특파원 리포트	환경호르몬에 무너지는 교실
7/12	사설	자립형 사립학교가 대안이라니
12		자립형 사립고 살펴보면
8/21	홍세화 빨간 신호등	공교육과 국가주의 교육
2001. 1/19	사설	의무교육 전면확대 환영한다
4/4	사설	과외망국론과 교육기회의 양극화
7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새 대입제도 실효성 ‘글썴’
10/15	한겨레 논단	교육인적자원!
11/22		교원정년 연장 교육위 통과 파장/ 개혁법안 되돌리기 첫 신호탄
2002. 3/12	독자칼럼	작은 학교 힘내라!
19	사설	입시교육 강화로 공교육 내실화?
19	왜냐면 토론	한단계 높은 교육개혁 논의를 위하여
2003. 1/20	발언대	쌍방향형 교육문화 기대

## 2) 담론 외적 개입: “선구성” 기제를 통한 현장진술

담론 외적 개입방식은 “선구성”의 기제로 작동한다. 이 선구성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은 “...사실”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단언(assertion)의 밖에서 이미 구성된 것, 즉 이데올로기와 특정한 입장에 의해 ‘상상적으로 구성된 현실’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특정한 사건과 행위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위기 담론에서 이러한 담론 외적 개입은

주로 현장진술 기사에서 발견된다.

우선, 조선일보는 장기적인 기획연재물과 사설을 활용하여 “교실붕괴”라는 사건의 사실성(factuality)을 재차 확인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위기의식의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조선일보의 기획연재 기사인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1~4)>의 현장진술에서 잘 나타난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아이, 수업시간에 교실을 뛰어다니는 학생들, 교사의 지시와 질책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 학생지도를 겁내는 교사들... 모두가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 무너지는 현장,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충격적인 『교실 붕괴』의 현장들이다. 그러나 교실이 무너지는 소리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일선 교사들은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한 지 이미 오래’라고 증언하고 있다. 『교실 붕괴』 현상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추적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조선일보, 1999. 8/24).

위의 인용기사는 “교실붕괴” 현장에 대한 긴박한 위기상황을 전하고 있다. 특히 밑줄 친 부분에는 반복적으로 “...현장”이라는 단어를 통해 교실붕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현실감을 부여한다. 하지만, 기사의 위협적이고 단정적인 제목에 비해 실제 기사 내용에는 교실붕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동어반복적이다. 그러면, 어떤 수업 현장일까?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 서울 모 여고 3학년 보충수업 교실. 1교시 시작종이 울렸는데도 이 반 학생 45명 중 3분의 1 정도의 자리가 비어있다.”(같은 기사)

위의 이어진 기사처럼 “교실붕괴”의 현장 진술은 여고 3학년 여름방학 기간의 보충수업 상황의 한 예일 뿐이다. 과연 이 특수한 상황이 “교실붕괴”의 현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바로 현장진술을 뛰어넘어 원인을 추적하겠다고 언급하며,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한 지 오래”라는 단정적인 제보를 덧붙인

다. 물론 인터뷰의 결과인 듯 인용표시를 했지만, 정작 취재원은 누군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추측성 교실붕괴 담론은 사설기사에까지 이어진다.

지난 8월 31일까지 4회에 걸쳐 연재된 조선일보 교육특집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를 접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교육현장이 황폐화의 정도를 넘어 붕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와 관련 되는 중대한 문제다.”(조선일보 사설, 1999. 9/1)

위의 “...는 것”은 “...사실”과 유사한 현실성 효과를 발휘한다. 즉 교육현장의 황폐화와 붕괴 현상에 현실성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기정사실화 하며, 교실붕괴의 심각성을 국가의 장래를 위협할 정도의 사회적 위기로서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같은 시기에 “10대 - 그곳에 가고 싶다(1~10)”라는 제목의 기획연재 기사를 실고 있다. 공교롭게도 연재 시작은 조선일보의 “교실붕괴” 사용시기와 유사한 1999년 8월 23일이다.

“10대의 눈길을 끌기 위한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 10대가 주요 소비자층으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문 알파벳 ‘T’(Teen.Twenties)나 ‘N’(next)자로 시작하거나 ‘1823’ 같은 숫자 홍보전략이 대부분 10대를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 있는 청소년들은 정작 자신들이 소비의 대상이거나 통제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한다. 스케이팅보드 공간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시선이 그런 보기다.”(한겨레, 1999. 8/23)

“춤추는 아이들의 기발한 몸동작에 자주 놀라면서 그 아이들의 생각이 너무도 재치 있어 저절로 웃게 되고, 그 애들도 춤을 추는 동안 내내 웃음이 가득하다. 공부하고 엄마한테 혼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지친 아이들이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콜라텍이다.”(한겨레, 1999. 9/20)

“\*어른들 잣대로 청소년 재단 말아야 / ‘학생 신분’ 국한 말고 사회 폭넓은 시각 필요 / 청소년 놀이 공간 부족 절감: ‘10대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공간을 찾습니다.’ 지난 8월23일 ‘10대-그곳에 가고 싶다’를 주제로 한 시리즈 기획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

(이경민) 청소년들을 ‘학생’이라는 관점 하나로 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시리즈 기사가 나가는 동안 ‘교실붕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문제였다. 학생이란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교실붕괴’를 우려하는 시각이 그것이다. 하지만 10대들은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가진 인격체다. 그들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학생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사회적 노력은 부족했다고 본다. 이번 시리즈에 등장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숨겨진 욕구와 욕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는 노력이었다.”(한겨레, 1999. 12/30)

위 기사는 총 10회에 걸친 기획연재 기사를 마치며 한 청소년 기자가 실명으로 밝힌 교실붕괴에 대한 입장을 보여준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은 조선일보의 입장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조선일보가 사회적 위기로 확대한 “교실붕괴”의 현상이 ‘사제지간의 신뢰가 붕괴되고’, ‘80%의 학생들이 무관심에 죽어가는’ 교실이라는 공간이지만, 한겨레는 기획연재를 통해 10대가 교실을 떠나 또 다른 배움의 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욕망의 공간을 드러낸다. 이것은 곧 청소년의 정체성과 욕망,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두 신문의 선구성된 입장이 명확히 대립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현실에서 중요한 ‘자명한 사실’이 조선일보의 경우 교실, 교사, 학생, 가정 등 제도적 공간을 전제한다면, 한겨레 신문의 경우는 청소년, 욕망, 가정 밖의 공간에서 포착된다. 즉 놀이공간과 코스프레, 콜라텍, 음악연습실, 패션가게, 독서실, 문화작업장, 아르바이트 공간 등 ‘열린 교육’의 입장이 한겨레의 기획연재 이면에 선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을 조선일보처럼 ‘수업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아니라 ‘생각 있는’ 주제

로 범주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지친’ 10대를 질타의 대상이 아닌 이해가 요구되는 주체로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교실붕괴”를 사회적 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과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 3) 담론 내적 개입: “절합” 기제를 통한 원인과 책임 규명

담론 내적 개입으로서의 “절합” 기제는 은유적 용법과 술어적 용법을 통해 작동한다. 은유적 용법은 알려지지 않은 A를 익숙한 B로 치환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그 익숙한 용어로 치환된 것을 문장의 새로운 계열체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는 언어표현의 방법(Sullivan, 1983, p. 137~138)이다. 즉 이것은 담론에서 호명된 개인(국민, 시민, 우리 등)에게 어떤 사고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 특정한 단어나 절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방식(Pêcheux, 1982, 6장 참조)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지식과 신념체계를 구조화할 수 있다(Fairclough, 1992, pp. 194~195). 왜냐하면, 이러한 은유적 용법이 특정 사건, 행위자, 행위 등에 대해 익숙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 상황에 보편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코 수준이 갈 수 없는 학생들을 나이가 같고 학년이 같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같은 교실에 집어넣어 같은 내용의 수업을 강행하는 평준화 교육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교육방법 …… 우리는 우리 모두의 귀중한 인적자원인 영재들과 수재들을 제도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잘못된 평등의식으로 그들의 발목을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남의 자식 잘되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비속한 시기심에서 벗어나,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우리의 영재들과 수재들을 보석처럼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키워서…… (조선일보 시론, 2001. 11/28)

위의 인용기사는 ‘본성에 역행’, ‘학대’, ‘족쇄’, ‘비속한 시기심’ 등의 은유

를 사용함으로써 ‘평준화 교육’과 찬성론자들을 순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이고 폭력적이며 이기적인 입장을 가진 ‘잘못된 평등의식’의 소유자들로 보편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평준화 교육”과 “평등의식”에 대해 매우 밀접하고 즉각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한다. 이 보편화를 통한 위협 효과는 술어적 용법에서도 분석된다.

“교실붕괴”라는 용어가 1999년에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 그 의미는 “건축물의 붕괴”였다. 하지만, 신문에서 기사화되면서 기존의 낯선 이 “교실붕괴”라는 용어는 “건축물 붕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회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익숙한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교실이 무너지는 소리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조선일보 사설, 1999. 8/24)

지난해부터 ‘교실붕괴’, ‘학교붕괴’란 용어가 학교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실정이 말해주듯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2000. 5/2)

여기서 “무너지는”과 “엉망이 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의 술어적 용법은 교육위기 상황에 대한 절박감의 효과를 발휘하며, 교실붕괴의 위협에서 당장 탈출해야 한다는 확신의 형태로 사고와 행동체계를 규정한다. 특히 “...말해주듯이”라는 절합 기제는 앞의 교실 및 학교 붕괴의 실정과 ‘엉망이 되고 있다’는 술어의 주장을 연결시킴으로써 선구성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를 통해 특수한 상황을 ‘이미 익숙한’ 사실로 치환하고 있다. 이러한 은유 방식은 건축물 붕괴 및 각종 재난에 민감한 독자들의 과거 경험 및 사고체계와 연관되어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면 교실붕괴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있어서 ‘절합’ 기제는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교실붕괴 원인에는 제도적 측면도 있다. 고교생의 경우 80%가 ‘버려진 지식’이 된 것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평준화시책 때문이다. 교사 혼자서 우열 격차가 심한 50여명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은 없다. ……우열 분리지도를 허용하는 등으로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고, 평가방법을 개선해서 빈둥거리며 적당히 수업시간을 때워도 성적이 잘 나오고 수능시험도 잘 치를 수 있다는 학생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고교교육 체제를 수요자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일이다. (조선일보, 1999. 9/1)

위의 인용기사에서 제시된 “…때문”이라는 절합 기제 역시 앞의 선구성된 주절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지지효과를 발휘한다. 즉 두 문장을 연결하는 이 접속사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주절의 입장과 결과적인 주장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에 선구성된 주장에 근거와 확신을 부여하는 용법이다. 위의 인용기사에서 보면, “교실붕괴”의 원인은 정부의 ‘평준화시책’이고, 이 평준화 ‘때문에’ 고교생 80%가 버려진 지식이 되었다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며 대안으로서 우열분리 지도와 사교육 수요의 축소,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예산 확대 등에서 찾고 있다. 앞의 사실에서는 여름방학 보충수업에서의 “교실붕괴” 현장을 고발했으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원인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고교교육은 취미·적성·특기·학습능력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공백을 그나마 사교육이 메워주었기에 ‘교실붕괴’ 속에서도 우리 교육이 이만큼 견뎌낸 측면도 있다. ……단기치방으로는 수준별 학습을 강화하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활성화하는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줄여 빈부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실, 2000. 4/29)

또한 이러한 주장은 곧 ‘빈부갈등 예방’이라는 다른 주장과 절합되어 마치

사교육 수요 축소 자체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인 듯 비약적 견해로 둔갑한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을 이어서 보면 조선일보의 ‘빈부갈등의 해소’에 대한 걱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한 정부의 지원조차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에 집착한” 것으로 비하된다.

문용린(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엿그제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나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 예산부족 등으로 공교육도 충실히 이르지 못하면서 사교육 분야에 국가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 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이 영어·컴퓨터 등 꼭 필요한 분야의 보충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그 지원범위를 제한해서 예시했고 …… 여러 가지 단서를 붙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발상 자체가 균형 감각을 잃은 것이고 과외열풍 억지와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에 집착한 나머지 해본 발언 같아 더욱 듣기 거북하다. 일선학교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벌써부터 적지 않은 파장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 국가예산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 사교육 활성화에 반비례해서 공교육은 더 위축되거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조선일보 사설, 2000. 5/2)

결국 “교실붕괴”와 “빈부갈등의 해소”를 위한 조선일보의 궁극적 개선책은 우열분리 지도와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원 재고에서 나아가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체제로 기초교육에 치중토록 하되, 고교는 사립을 중심으로 특성화 또는 전문화해서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2000. 4/29)

반면,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방침을 공교육 포기 로 규정하며, 공교육 위기의 원인은 교육 평준화 자체가 아니라 평준화 정책



시행 이후 후속적인 다양한 교육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때에, 자립형 사립교 도입방침은 대다수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 다양한 형식의 학교는 그것이 대안학교건 기숙학교건 영재학교건 특수층을 위한 고급 사립학교건 수요도 있고 필요도 있다. …… 그러나 그 전제는 분명하다. 공교육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계획과 그에 따라 10년 정도 앞을 내다본 구체적인 예산에 기반한 정부의 의지가 실린 정책을 확고히 한 다음의 일이다. 공교육 위기는 고교 평준화를 해놓고 할일 다했다는 듯 교육에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책당국에 있는 것이다.

한해에 학비가 수천만 원인 전통적인 사립교가 유럽이나 미국에 있고, 10%에도 이르지 않는 그러한 고교의 졸업생이 명문대의 50%를 점유하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나라들의 공립학교 교육이 피폐해 있고, 청소년 범죄와 교실 붕괴 등 사회문제를 일으켜 교육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 공교육 대책 없는 자립형 사립교 도입방침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길 없다. (한겨레신문, 사설, 2000. 7/12)

위 인용구에서 절합 기제의 용법을 볼 때, 교육의 불평등 현상과 자립형 사립교 도입방침이 연결됨으로써 공교육 포기로 의미화된다. 이것은 앞에서 본 조선일보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관과 명확히 구분되는데, 자립형 사립교는 이 입장에서 “교실붕괴”로 상징화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일보가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한겨레신문은 평준화정책을 ‘할 일’과 연결시키면서 문제의 초점을 이 정책 시행 이후의 사후 대책으로 옮겨놓고 있다.

한편 교실붕괴의 원인과 책임규명에 있어 한겨레신문은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학교위기가 현재의 학교교육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의 원인을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학급상황과 산업적 계몽주의, 즉 ‘시장화’된 교육훈련과 지식주입에서 찾고 있다.

…… 문제는 차라리 현재의 학교교육 자체에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건 동질화한 학급 안에 많은 아이들을 집어넣고, 근대적 노동자, 근대의 개인으로 훈련. 훈육하며, 그런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주입하는 산업적 계몽 모델 자체의 문제는 아닐까. (한겨레신문, 야! 한국사회, 1999. 11/19)

또한 “교실붕괴”의 원인을 “올바른 교육철학”에 두는 관점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사교육비의 증가나 평준화 정책 등에 두는 조선일보의 입장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것은 “공교육”이 “권력순응형 인간을 형성하려는” 국가주의 교육의 장이라는 비판과 ‘무료 공교육’의 주장과 절합됨으로써 무료 공교육의 현실적 필요성을 일반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이 ‘학교 붕괴’ ‘교실 붕괴’의 암울한 지경에 빠진 까닭은 올바른 교육철학이 없었던 탓이다. …… 단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일본의 황국 신민화 교육의 뿌리 위에 접목시킨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철학뿐이었다. 공교육은 ‘공산당은 싫어요’나 ‘국민교육헌장’ 따위의 권력순응형 인간을 형성하려는 국가주의 교육을 펴기 위한 장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해방 후 55년이 지났건만, 또 경제력도 그에 따라 커졌건만 무료 공교육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 홍세화 빨간신호등, 2000. 8/21)

이러한 무료 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그 다음 해에 게재된 사설을 통해 ‘중등 의무교육 전면확대’ 시행정책과 연관되며, 이것은 곧 교육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 방침으로 옹호된다.

중학 의무교육 전면확대는 애초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 이번 조치로 도시 저소득층 상당수 학생이 중학교교육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라도 바람직 …… 중학 의무교육 전면확대를 환영하면서도 ‘교실붕괴’ 현상을 생각하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과밀학급에 교재와 교구는 낡았고, 교사 사기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등 학교교육의 환경이 사교육인 과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결국 교육제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들의 사기와 질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또 이번 발표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은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잘사는 집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못사는 집 자식은 공부도 못한다는 풍조가 확산됐다. …… 이번 발표를 기회로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공교육의 기본정신이 교육계에 확산되고 또한 의무교육도 더욱 내실화되기를 기대한다. (한겨레신문, 사설, 2001. 1/19)

위에서 볼 때, 교실붕괴 현상의 원인은 학교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 열악한 근거는 조선일보의 수업현장에서 나타난 교사-학생 간의 신뢰나 학생들의 방만함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달리 한겨레는 교육환경의 물적 조건인 과밀학급과 교재 및 교구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또한 교육기회의 평등을 빈부격차 해소방안에 연결시킴으로써 사립형 자립교를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입장과의 구분된다.

### 3) 호명을 통한 주체구성: 사후대책

두 신문은 교육위기와 관련하여 주체들을 어떻게 호명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곧 각 담론이 어떠한 주체형태를 구성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떻게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의 적대성, 즉 의미의 대립을 구성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주체구성 방식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그들(us:them)의 뉴스 이야기 구조”(Hartley, 1982, p. 116)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뉴스 이야기 구조는 구조적 문제를 집단 간, 세력 간 분쟁으로 집약시켜 특정 사건이나 시안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주는데, 이러한 접근은 주로 사실이나 칼럼 및 논단 등의 분석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보도기사나 기획 연재물 등이 기사작성의 원칙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자를 배제하거나 수동적 수용자로 대상화한다면, 사실 등은 독자를 적극적인 대화 상대자로서 담론 내로 불러와 화자의 입장과 일치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담론의 이데올로기는 교육위기의 사후대책과 관련하여 사건 관련 행위자들과 독자들을 어떻게 호명하는가? 여기서는 교육 평준화 정책과 수월성 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기준으로 두 신문담론의 주체구성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정부주도 아래 시장기능은 경시한 채 평준화 시책에만 골몰해왔다.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 수월성교육은 크게 손상 받아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교육이 서있는 현주소다. 지금 우리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방법론에 경제재건의 명운을 걸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원리가 경제에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만병통치의 묘약은 아니겠지만, 벽에 부딪쳐있는 우리 교육의 돌파구 마련에 적잖은 시사를 줄 수 있다고 믿는다(조선일보, 논단, 1999. 4/7).

‘열린교육’은 중등사학을 포함한 초·중등학교의 차별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부여 등을 전제로 한 개혁 슬로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획일적인 학교체제를 묶어놓고 ‘열린교육’을 강행하다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병행해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정부가 의도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사설, 1999. 12/17).

평준화 교육의 반대되는 개념은 수준별 교육이다. …… 평준화 교육은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교육방법이다. 중등교육 평준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하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점을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비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들 비평준화를 반대하고 평준화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대체로 서민계층의 사람들일 것인데, 평준화정책을 지지하는 바로 그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아이로니컬하게도 사실은 평준화정책 최대의 피해자들이다. 평준화정책이 공교육을 폐쇄화시킨 주범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평준화된 교실에는 우수한 학생과 보통의 학생과 열등한 학생이 혼재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보통의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수업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업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수업에서 소외된다. 반대로 수업수준을 넘는 우수한 학생은 수업에 흥미를 잃어 수업참여도가 떨어진다. 배울 수가 없고 배울 게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실 수업은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가두어 두는 일종의 감금행위(감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는 교실의 붕괴로 이어진다. 평준화정책 아래서 교실 붕괴는 어쩌면 필연이다 (조선일보, 시론, 2001. 11/28).

현행 평준화 제도가 도입 당시의 기대에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쟁적인 교육체제로 바꾸어 유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다. …… 예를 들면 지금보다 특수목적고의 수를 더 많이 늘려 수월성교육과 개성화 교육을 아울러 추진해 가면서, 한빔으로 자립형 고교를 도입·확대해 가는 것이다(조선일보, 시론, 2003. 10/30).

수월성교육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학부모·교사·학생들의 폭넓은 이해공감대가 형성되어야……(조선일보, 시론, 2004. 12/25).

위의 인용 기사에서 제시된 조선일보의 ‘우리:그들 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5>). 다음 <표 5>에서 제시했듯이 ‘우리’라는 위치에 주로

화자가 옹호하고 지지하는 범주들인 ‘우리교육’, ‘자유경쟁’, ‘수월성 교육’, ‘신자유주의’ 등이 배치되었다면, 이와 대립적 위치에는 ‘정부의 평준화시책’, ‘정부’, ‘열린 교육’, ‘평준화 교육’ 등이 교실붕괴 사건의 주범이자 자유경쟁 교육시장의 저해요인이며 계도해야 할 무지한 대상인 ‘그들’로서 주체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유경쟁체제와 비평준화교육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의 입장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고(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동일시), 동시에 특목고 등 ‘수월성’ 중심의 지식교육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리 이면에는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교육 이데올로기는 이미 영국과 미국의 교육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한 바 있는데, 그 맥락을 보면 조선일보의 논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교육정책이 ‘수월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그 결과 소위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거노믹스(Raganomics)에 기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와 자유경쟁이 중시되는 교육개혁 정책이 들어서게 되었다(Witty & Halpin, 1998/2000). 이러한 전철을 밟으며 조선일보는 “교실붕괴” 담론을 주도하며 표면과 배후 양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Apple, 1993, 2001; 서덕희, 2003)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사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좋고, 공적인 것은 나쁘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 예컨대,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들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블랙홀로서 간주되고, 학생들은 ‘인간자본’이자 동시에 ‘소비자’로서 평가된다. 여기서 자유와 평등을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는 ‘소비자 선택’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경제논리로 뒤바뀐다.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경제적 합리성이 확보되며 ‘효율성’이 보장된다. 반면, 신보수주

의는 지식과 가치에 관한 한 ‘강한 국가’를 지지하여 의무적인 국가 및 주 차원의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텍스트, 높은 학력 기준과 서구 전통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며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이 두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충실하게 동일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표 5> 조선일보의 “우리:그들” 구조

우리(us)	그들(them)
우리 교육	정부의 평준화시책
자유경쟁	정부주도
수월성 교육	열린 교육
신자유주의의 원리(국가경쟁력)	
수준별 교육(경쟁적 교육)	평준화교육
비평준화 반대 서민계층 학부모의 자녀들	비평준화를 반대 서민계층 학부모들
우수한 학생	열등한 학생
특수목적고의 수 확대	
인간본성 부합	인간본성 역행

반면, 한겨레신문의 평준화정책에 대한 “우리:그들 구조”는 조선일보의 배치와 대립된다.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을 무력화하는 연구결과가 잇따라……평준화정책은 고교입시 과열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생긴 제도다.……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평준화가 곧바로 학력 하향이라는 그간의 주장과 이를 바탕으로 입안되고 주장되었던 일류대 합격을 염두에 둔 고교입시 부활이나 특수 자립고 설립 주장의 근거들을 무색케 하는 것……평준화정책이 고교교육 문제 해결의 왕도는 아니다.……고교교육의 다양성을 꾀하는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한겨레신문, 사실, 2001. 5/25).

한국개발원이 내놓은 ‘비전 2011 보고서’에서 많은 국민들은 비전대신 절망감

을……교육에 관한 철학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이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등록금도 자율화하고 사립고와 입시학원을 통합하고 대학에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중요내용이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돈 있는 일부층에게 차별적으로 우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 …… 교육부에서 손을 떼고 싶어한 재정경제부와 사학재단,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져…… 그러나 한 국가의 교육목표의 최우선은 전 국민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두어야 한다. 소수의 정예를 키우고 이들이 사회경제의 주역을 만들어 국가를 이끌어가게 하겠다는 엘리트주의는 교육진반을 황폐하게 만들고 대다수 국민들에겐 상대적인 기회박탈이 될 수밖에 없다. ……명문대의 부유층 입학률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정부가 이끌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하향화를 초래하였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차별적 교육을 받고 돈으로 학벌의 간판을 따고 싶어 하는 우리사회 일부 여론을 국가연구기관이 대변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그러한 학벌주의와 차별적으로 우월한 교육의 수혜자이기 때문…… (한겨레신문, 사설, 2002. 2/16).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육과정평가원의 2001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공해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 심각’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큰 파장을 일으켰다. …… 문제는 이 자료를 낸 이 의원이나 언론보도에 현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간 격차가 평준화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의원의 자료에서도 평준화 지역 고교간의 학력격차가 비평준화 지역보단 작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결국 ‘평준화 정책 때문’에 격차가 생긴 것이 아니라 ‘평준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만족스러운 정도로 줄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 기득계층의 이익을 지키려는 집요한 노력과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교육부의 안일함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를 시정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없는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돼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기 쉽다. 이 때문에 근대 교육사상가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책무를 국가에게 지웠



다. 평준화정책은 이런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틀이다(한겨레신문, 편집국에서, 2004. 9/13).

위의 인용기사들에서 나타난 두 대립 주체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주체구성의 범주는 ‘평준화정책’, ‘고교교육의 다양성 정책’, ‘교육철학’, ‘평준화 교육’, ‘교육의 기회균등정책’, ‘국가의 책무’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고교입시 과열’, ‘특수자립고 설립’, ‘기득계층의 이익’, ‘경제논리’, ‘차별적 교육’, ‘엘리트주의’, ‘교육부의 안일함’ 등이 문제가 되는 범주로 대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겨레신문의 입장은 “교실붕괴” 담론에 대한 역동일시적 대응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재정경제부, 사학재단, 교육부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책 등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태도는 교실붕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척도였던 ‘평준화 vs 비평준화’와 ‘비효율성 vs 수월성’의 대립점을 ‘교육철학 vs 경제논리’로 나아가 엘리트주의, 학벌주의, 차별적 교육 등의 사회구조적 불평등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표 6> 한겨레신문의 “우리:그들” 구조

우리(us)	그들(them)
평준화정책	고교입시 과열
고교교육의 다양성 정책	고교입시 부활/ 특수자립고 설립
많은 국민들	돈 있는 일부층/기득계층의 이익
교육철학	경제논리
-	등록금 자율화/ 사립고와 입시학원 통합/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
평준화교육	우월한 교육/차별적 교육
-	재정경제부, 사학재단, 일부국민들/일부여론
전국민의 수준	소수정예
교육의 기회균등정책	엘리트주의/학벌주의
국가의 책무	교육부의 안일함

발견된다.

하지만, 한겨레신문 역시 ‘수월성 교육’을 둘러싼 신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동일시적 태도나 대안적 시각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성’과 ‘민주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른바 ‘교육의 수월성’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생산성 있는 교육’을 교육이념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한겨레신문, 특집, 2004. 5/10)

수월성교육은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소수의 엘리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보편적인 교육권 보장’이라는 평준화 제도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한겨레신문, 사설, 2004. 12/23).

위에 제시했듯이 한겨레신문은 교육의 수월성(us) : 공공성/민주성(theme)을 서로 대립적 위치에 두면서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소수 엘리트주의에 기반한 조선일보의 ‘수월성 교육’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겨레 역시 논리 비약적으로 ‘기회균등의 원칙’과 연결시키면서까지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반동일시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한국사회의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가 기존 보수언론과 의미의 대립과 차이를 상실한 채 동질화되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상징하는 두 신문 - 조선일보와 한겨

래신문-이 어떻게 “교육위기” 담론의 의미와 주체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사례분석을 행하였다. 연구결과 1999년 이후 사회적 공론장에 등장한 “교실붕괴” 담론이 서로 다른 언어체계의 선택 및 조합, 그리고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통해 상이한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언어체계의 선택과 조합의 문제는 선구성과 절합 기제를 통해 규명, 분석되었다. 이것은 폐쇄의 유물론적 담론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후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담론과정 속에서 의미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용되었다.

한편,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각 신문의 담론에 개입하는지를 주체구성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알튀세에 이어 폐쇄가 발전시킨 호명테제는 “교실붕괴” 등의 교육위기 관련 기사들의 이면에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대립점을 포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호명에 동일시하는 반면,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두 이데올로기의 호명에 대해 각각 역동일시적, 반동일시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교육위기” 담론이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분석이 갖는 함의는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이 구체적으로 언어체계의 선택과 배제, 즉 선구성과 절합 기제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담론의 적대성, 즉 의미대립의 지점 혹은 대립의 척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이슈와 의제들에 대한 담론적 개입을 해내고, 나아가 지배 권력을 재생산하는 지배담론에 균열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담론은 다양한 입장이 대립하고 투쟁하는 장이고, 언어분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힘의 표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Ⅱ 참고문헌

- 강내희 (1992). 유물론적 문화론 정초를 위하여. 『문화과학 1』, 70~90.
- \_\_\_\_\_ (1996). 『문화론의 문제설정』. 서울: 문화과학사.
- 강진숙 (2005). 『담론분석방법론』. 서울: 이진출판사.
- 권대봉 (1992). 휴먼웨어를 개발하자, 서울: 파고다출판사.
- \_\_\_\_\_ (1999). 평생학습사회의 인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 『인력개발연구』, 1(1): 25~37.
- 김민 (2000). ‘학교붕괴’, 신화인가 현실인가?. 『교육인류학연구』, 3(2), 1~30.
- 김성열·고창규 (2000). ‘교실붕괴’와 교육정책: ‘교실붕괴’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3(2), 153~192.
- 김수정 (1991). L. Althusser의 이데올로기론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대한 일고찰: L. Althusser의 이데올로기론에서 M. Pêcheux의 담화이론까지,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원중 (2000). ‘교실붕괴’의 교육심리학적(?) 분석. 『교육인류학연구』, 3(2), 79~138.
- 박운배, 김경식 (2002). 학교교육 주체들이 지각하는 교실붕괴 현상의 원인. 『교육사회학연구』 12(3), 101~120.
- 서덕희 (2003). “교실붕괴” 기사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6(2).
- 알렉스 캘리니코스 (1989). 『마르크시즘의 미래는 있는가』. 황석천 역. 열음사.
- 은혜정·임태섭 (1998).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의 정규교육 정책화 방안연구. 한국방송개발원연구보고서.
- 이돈희 (1992). 『교육정의론』. 서울: 고려원.
- 이종재 외 (2001). 학교교육의 실상 분석 및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혁규 (2003).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한 교실 붕괴 현상의 이해와 진단. 『교육인류학연구』, 6(2), 125~164.
- 전해자 (1990). 권력의 재생산/변혁에 관한 담화이론 비교 연구: 푸코와 폐쇄를 중심으로, 서강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 (2000). ‘교실붕괴’의 교육인류학적 분석: 학교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갈등을

-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3(2), 43~66.
- 조용환 (2001). 문화와 교육의 상생-갈등 관계. 『교육인류학연구』, 4(2), 1~27.
- 천세영 (2002). 인간자원개발과 교육에 관한 음미. 『평생교육학연구』, 8(1), 201~220.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청소년 문화론』. 서울: 서원
- \_\_\_\_\_ (1999). 학교실태 및 대책연구. 『MBC 청소년백서』.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9).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실태 및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황갑진 (2001). 인터넷에 나타난 교실붕괴 담론의 유형.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월례발표회 논문.
- Althusser, L.(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London: New Left Books. 이진수 역 (1991), 『레닌과 철학』, 서울: 백의.
- Apple, M. W. (1993). *Official knowledge: democratic education in a conservative age*. New York: routledgeFalmer. 박부권 외 역 (2001). 『학교지식의 정치학: 보수주의 시대의 민주적 교육』. 서울: 우리교육.
- \_\_\_\_\_ (2001). *Educating the "Right" Way: Markets, Standards, God, and Inequality*. New York: RoutledgeFalmer.
- Bell, A. & Garrett, P. eds. (1998).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London: Blackwell Pub.
- Dijk, V. (1983). Discourse 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33, No. 2.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London: Polity Press.
- \_\_\_\_\_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 Focault, M. (1961). 광기의 역사, 김부용 역 (1999), 서울: 인간사랑.
- Fowler, R. & G. Kress (1979). *Language and control*, Routledge and Kegan Paul.
- Gee, J., Michael, S., O'Connor, M. (1992). Discourse analysis. In M. LeCompte, W. Millroy, J. Preissle(Eds.),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pp. 227-291). New York: Academic Press.
- Hayek, F. A. (1988). *The Fatal Conceit - The Errors of Socialism*. 신중섭 (1996). 『치명적 자만-사회주의의 오류』. 한국경제연구원.
- Hall, S. ed. (1997).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Pub.

- Hindess, B. & P. Hirst (1977). *Mode of Production and Social Formation: An Auto-Critique of Pre-Capitalist Modes of Production*, Macmillan.
- Lieberman, M. (1993). *Public Education: An Autops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Macdonell, D. (1986). *Theories of discourse: an introduction*, Basil Blackwell. 임상훈 옮김,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 Pecheux, M. (1982).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US: St. Martin's Press.
- Plumpe, G. (1988). Kunst und juristischer Diskurs. Mit einer Vorbemerkung zum Diskursbegriff. in J. Fohrmann/H. Müller(Hrsg.), *Diskurstheorien und Literaturwissenschaft*, 330-345. 고규진 역 (2002). 예술과 법 담론-담론 개념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담론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 Potter, J. (1997). Discourse Analysis as a Way of Analysing Naturally Occurring Talk. In D. Silverman(2nd Ed.) *Qualitative Research: Theory, Method and Practice*. (pp. 144-160). The Hague, Netherlands: Mouton.
- Vetter, Helmut (1987), "Welches Subjekt stribt?", in *Tod des Subjekt?* Hrg. von Herta Nagl-Docekal & Helmut Vetter, Wien/München: Oldenbourg.
- Witty, G. & Halpin, D. (1998). *Devolution & Choice in Education*. London: Open University Press. 이병곤 외 역 (2000). 학교, 국가, 그리고 시장.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Woods, R. (1977). 'Discourse Analysis: the Work of Michel Pêcheux', *Ideology & Consciousness*, no. 2.

(최초 투고 및 최종원고 제출 2005. 12. 1)

## **A Study on the mechanism for discursive constitution of meaning and subject appeared in “Educational crisis” by Korea mass media**

Jin-suk Kang

Researcher

(Communication &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wo mechanisms appeared in Educational crisis by Korea mass media, which are discursive constitution of meaning and the mechanism for discursive constitution of subject. The analysis will classify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nflict opposition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media

As background for chosen case study, language structure and combination methods in Theory of Discourse of M. Pêcheux will be discussed. Specifically, choices and combination methods of the chosen language structure - the preconstructed, articulation, mechanism, and structuring method of ideology will be main topics. Following case study will be Chosun and Hankyoreh newspaper, each represent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side. Discussion regarding educational crisis news, such as “Collapse of Classroom”, “Collapse of School” is selected, and analyzed in terms of insight story, cause and responsibility, and taken measures.

**Key words** : Discourse, Constitution of meaning, Constitution of subject, Michel Pêcheux, the preconstructed, articulation, Collapse of Classroom, Educational Crisis